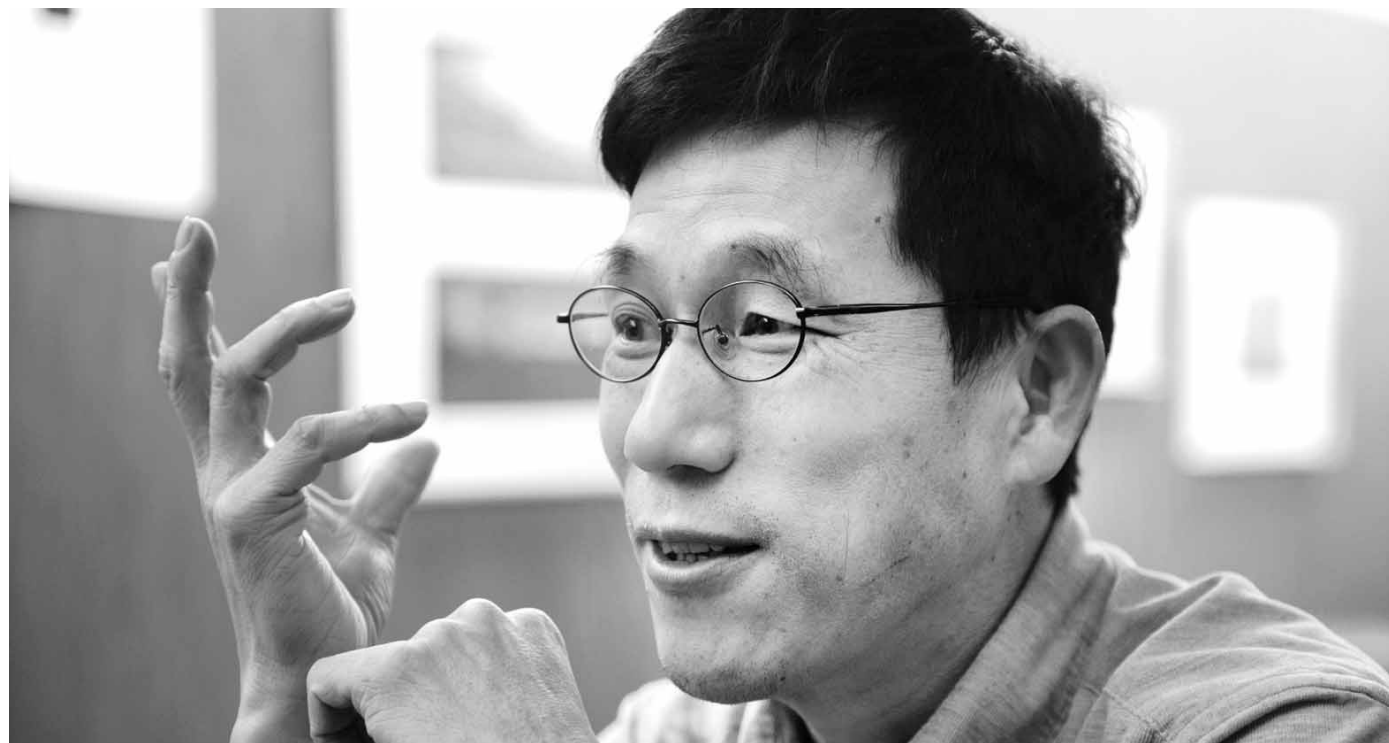


시대의 논객 ... '춘철살인' 이면엔 해맑은 미소

컬처 & 피플

인문학자

진중권



인문학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대표작 '미학오딧세이'(휴머니스트)가 올해로 출간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1994년에 발간된 '미학오딧세이'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을 만큼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대화체로 써내려간 이 책은 미학의 대중화에 획을 그은 책이라는 평이 따른다.

최근에 진 교수는 일상을 지배하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 인문학'(천년의상상)을 펴냈다. 디지털 이미지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세계와 사물을 성찰한 책이다. 이제 텍스트 중심의 인문학은 이미지와 사운드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기자가 만난 그는 '포커페이스'였다. 논리 정연한 논객 이면에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를 감추고 있다. 사실 그에 대한 평가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폭이 넓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다층적이라는 의미다. "미학오딧세이"가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랑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미학의 역사, 이와 연계된 문제 영역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봤던 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쯤이면 기존의 텍스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는 '미학오딧세이'가 형식 면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반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일테면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 말하고 듣는 방식의 차용, 인터넷 문화와 친근한 구어체 등이 어필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유학 갈 때 항공료나 벌어보자는 심사로 썼던 책이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책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고, 물론 이렇다 할 반응도 없었다. 그러다 한 두 해쯤 지나면서 조금씩

창의성 없는 기술은 기능일 뿐 패러다임 기술→디자인→예술 미학이 미래의 경제학 될 것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입소문을 타고 책이 팔려나가면서 독자들의 뇌리에 진중권이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되었다. "당시에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미학서적은 미학, 철학, 예술이 섞여 있어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와 대화체를 접합했던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든지, 작품 이면에 예술가의 삶과 사유를 제시한다든지, 소재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지요. 그러나 어떤 내용도 미학적인 관점에 수렴이 되도록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실 80년대 우리 사회는 민주화라는 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담론이나 성찰은 없었다. 물론 안에서든 전후에서든 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유희적인 관심이 일었다. 그는 이를 "문화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로 이어졌고, 미학의 생활화로 연결되었다"고 덧붙인다.

"미학오딧세이"를 쓰면서 '이코노믹'을 썼어요. 인문학적 베이스가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일반 독자를 모두 배려했던 거죠. 예술, 미학 개념, 철학을 골고루 배분했고 에세이, 마그리트, 피라네치라는 세 예술가를 등장시켜 각기 독특한 해석을 이루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서울대 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학

과 언어철학을 공부했다. 80년대 초반이면 법학이나 경제학이 인기 있었을 텐데(지금도 그렇지만) 굳이 미학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남들이 모두 좋아하는 분야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그 길을 갈 사람은 많았다"며 "결과적으로 미학을 선택한 건 절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한다.

그의 형제자매는 공부 잘하기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누나 진희숙(56)과 진은숙(53)은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명사다. 큰누나는 이화여대 음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 예술의 전당 강사, 음악평론가, 칼럼리스트로 활동한다. 작은 누나는 서울대 음대 작곡과와 독일 함부르크 대학 작곡과를 나와 서울 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생 진중결은 한신대에서 공부한 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한다.

4남매가 모두 공부를 잘했으니 사람들이 가정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일 만도 하다. 그러나 그는 특별하게 없다는 반응이다. "가난한 목회자였던 아버지는 지식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특별한 게 있다면 자녀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다녔다. 지금으로 치면 '체험학습'과 같은 거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미학 체계사를 쓸 예정이라 한다. 어느 학문든지 학술사와 체계론이 있기 마련인데 미학 분야는 체계사가 없다는 것이다.

"미학은 단순히 과거의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의 경제학은 미학이 될 것이다. 기술 패러다임에서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예술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곳곳에서 '창조', '창조'하는데 창의성 없는 기술은 단순한 기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 생각을 맡아오 지나간 일들은 /음 그리워 맡아오 떠나갈 남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맡아오/음 음 음 음...” (김정호의 '하얀 나비' 중에서)

광주출신 가수 김정호(1952~1985)의 '하얀 나비'를 처음 들은 건 70년대 후반 흑백 TV에서다. 오랜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요절 가수들의 생전 모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유난히 장백한 표정, 슬픔이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는 수십 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는다. 그 래서인지 몰라도 지난 2001년 R&

김광석과 김정호

B 남성 듀오 브라운 아이즈가 미디엄 템포로 리메이크한 '하얀 나비'를 듣는 순간 명곡을 만났다는 것(?) 같아 속상해 했던 기억이 있다. 우수에 젖은 김정호와 경쾌한 리듬의 '하얀 나비'는 왠지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적 감성을 건드린 브라운 아이즈의 리메이크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기자가 지금도 가끔 듣는 '하얀 나비'가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일 만큼 대히트를 쳤다. 지난 5월 KBS 2TV의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 출연한 가수 휘성 부자가 부른 '하얀 나비'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에는 '하얀 나비'와 김정호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였다.

사실 이 같은 김정호에 대한 관심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한국 포크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객이자 요절한 싱어송 라이터라는 이유로 종종 김광석(1964~1996)과 비교되지만 위상은 크게

다르다. 뛰어난 음악성과 가난, 그리고 질병에 시달린 끝에 서른 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다. 그럼에도, 김정호가 70년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비운의 가수라면 김광석은 TV CF나 뮤지컬, 콘서트 등에서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불멸의 아이콘이 됐다.

에디 이뿐인가. 대구 시내 김광석 거리와 서울 대학로의 김광석 부조물에서도 그는 살아 숨쉰다. 지난 2011년 대구시가 지역 출신 김광석을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그가 태어난 방천시장 부근의 독길 350m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로 조

성한 덕분에이다. 기자가 찾은 지난 4월 중순에도 김광석 거리는 전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김광석 노래만 흘러나오는 이곳에는 조각, 만화, 그림, 일러스트 등으로 태어난 '분신'들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주말에는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변 상가들까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도 김정호 노래비 건립 등 재조명 사업이 지지개를 파고 있다. 담양가로수사랑 군민연대는 김정호의 담양출신 외조부인 박동실 명장(1897~1968)의 음악적 피를 이어받은 그를 기리기 위해 노래비·동상 건립, 가요제 개최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작 그가 태어난 광주에서는 김정호를 브랜드로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 그의 음악과 삶에 스토리를 엮는다면 얼마든지 문화 광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하얀나비'의 노랫말처럼 '때가 되면 다시 피게 될 날'이 오도록 지혜를 모으자.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대추고임' 만들기 시연 ... "방문객에 쑥개떡 드려요"

12일 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2일 오후 2~4시 문화관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앞마당에서 '토요전통먹거리 중 요무형문화재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남도의례음식장 17호 이애선 선생이 참석해 폐백상에 오르는 '대추고임' 만들기를 시연한다. 이수자

들은 '쑥개떡'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대추고임은 자손 번창과 수명 장수, 부귀 등의 의미를 지닌 전통 음식이다.

이애선 선생은 지난 2006년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통음식의 체계화 및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문의 062-232-1501.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델/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상업용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델,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디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재 관

급매합니다

매매가격	매물종류	내용
2,600만원	오피스텔	금년로얄세권 7층39㎡ 총2,600만원(공실)
4,000	무관리일대	금년6기 전월임대구 총166㎡ 유희인구 임차
6,500	이파드전세	평산구도촌중 중음비2층75㎡ 1인실가능
3,500	대학가상가	나주 대학앞 근생권 주택 대지579㎡
198,800	주택(현역)	서동 주22층01타입 441㎡ 원룸 최적
396,200	명원동	광주 황대영 총15 방99,000원330만원포함
3917,000	충장동5기 주2인세+원룸	침2 방2 부2 2009년510포
795,000	대인동상업(3600㎡)	침2 방30 부1억1700포함
4917,000	대학가전	평원국도변3900㎡ 1,053㎡ 일매100인원이상
4억	엄행선건물	대인동대교변 상업지 4293㎡ 건물2층
5억	예술거리	최고교지 상업지165㎡주인거주4,000원150포
595,000	역세권빌딩	금년7기임대구 대지208㎡ 보3,500원382만원
795,000	역세권빌딩	대인동 상업지271㎡중층 보9,000원450포함
14억3,500	역대리코너	금년4기195㎡2층90㎡ 보1억 8800포함
24억	역대리코너	중상상업 대지10㎡22,600㎡보2억9천1,000포함
3천-10억	임야.농장	화순 장성지방 국도변 이산.농장 다수 확보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싹뻗습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건강,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루8,000여명이 북적거리는 장터

여러분들 누구나[무료]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주세요

구합니다

찾는 지역,금액,월세비중이 맞지않아 대기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부동산이라면 뭐든] 금액과 지역에 상관 없이 연락주세요 바로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다와옥션 (법원경매추천물건)

주객 고풍군 금산면 어전리 대지 406㎡ 건물 99.24㎡ 최저가 2043만원 해수욕장 200m거리

봉선동 신축아파트 부근 코너 대지 236㎡ 건물 584㎡ 상권,입지조건 유동인구 최상 최저가 4억5300만원

광천동 2층주택 대지 147㎡ 건물 137㎡ 감정가 1억1135만원 최저가 7794만원 재개발예정구역 투자적합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